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6년 11월 8일(일) 제1611호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기를!"

엔젤트리, 11월 14일까지 온라인 및 목회행정실 사연 접수
11월 21일부터 각 캠퍼스 로비에 사연 게시 및 후원자 연결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기를 전하는 '2026 엔젤트리' 사연을 11월 14일(토)까지 접수한다. 접수된 사연은 11월 21일(토)부터 사연이 소진될 때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로비에 게시되고, 후원자와 연결한다.

2026 엔젤트리 사연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엔젤트리 홈페이지(angeltree.kr), QR 코드에서 접수하면 된다.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서 '엔젤트리 사연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도 된다.

올해 접수된 엔젤트리 사연에도 지나칠 수 없는 이웃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외국인 근로자,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이웃, 장애인 어머니를 돌보며 교사의 꿈을 키우는 학생,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지내는 어린이에게 선물을 보내달라는 사연 등이 도착하고 있다.

'엔젤트리 사연 신청서'에는 선물을 전하고 싶은 대상의 특이사항, 성격, 좋아하는 것,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한 물건(예: 캔 참치 한 상자, 쌀 10kg, 내복 100 사이즈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청자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 대상자의 연락처, 도로명 주소도 잊지 말고 기록해야 한다.

선물은 5만 원 내외로 고른다. 케이크, 고기, 생선 등 변질 우려가 있는 품목과 도서상품권, 외식상품권 등 상품권은 신청할 수 없다. 명품이나 특정 브랜드도 요청할 수 없다. 특히 의류와 신발은 정확한 사이즈를 알려줘야 한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운동이다. 미국 교회들이 재소자 자녀에게 성탄 선물을 보낸 데서 유래했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부터 엔젤트리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성도 29,615명이 참여했고, 이웃에게 4만 개 이상의 선물을 전달했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1월 15일 화재 대피 훈련 실시

서빙고 2부 예배 직후, 모든 성도 대상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한 예배 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11월 15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예배 직후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화재 대피 훈련은 용산소방서와 연계해서 진행한다.

화재 대피 훈련은 3층 본당 방화셔터를 작동하고 연막탄을 사용해 화재 상황을 재현한 뒤 대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본당과 비전홀, 시온홀과 자모실, 두란노홀과 콘서트홀, 사랑홀 등 예배 장소별로 실시한다. 대피 훈련을 마친 다음, 소방서와 함께 화재 진압 시연을 한다.

대피 훈련 이후에는 동빙고근린공원 실습장에서 참여형 안전 교육이 이어진다. 실습 항목은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진압,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소화전 및 비상발신기 사용법 등이다. 실습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준다.

/ 홍하영 기자

남양주 창립 22주년 감사예배

11월 7~8일 모든 주일예배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11월 7일(토)과 8일(일) 본당에서 드린다. 일요주일 1~3부 예배에서는 변대섭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삿 9:7~20)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소정의 기념 선물을 준다.

변대섭 목사는 "지난 22년 동안 남양주온누리교회에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써가는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한편,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창립 22주년 특별 부흥집회를 연다. '예수의 길'(롬 12:2)을 주제로 변대섭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 남현영 기자

Christmas for you '엄마 사랑해'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본당

여성 맞춤전도집회 Christmas for you '엄마 사랑해'가 오는 12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딸이 엄마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을 선물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의 장(場)이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개그우먼 조혜련, 가수 이지훈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Christmas for you '엄마 사랑해'에 어머니를 초청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또는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속 캠퍼스 및 공동체, 전도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비는 3만 원. 문의: 02-3215-3667

/ 홍하영 기자

11월 비전헌금 '코스타(KOSTA)' 후원

11월 7일(토)과 8일(일) 봉헌하는 비전헌금은 '코스타(KOSTA)'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코스타(KOSTA)'는 복음의 열정으로 뭉쳐진 연합사역으로, 교단과 교파, 단체의 벽을 넘어 함께하는 연합운동이다. 전 세계 한인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를 개최한다. 수능기도회는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수능매일기도회'는 11월 9일(월)부터 18일(수)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층 꿈아이홀과 양재온누리교회 선교동 1층 꿈터에서 열린다(토, 일 제외).

'수능당일기도회'는 11월 19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어진다. 수능당일기도회는 수험생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1교시 이재훈 위임목사, 2교시 박종길 목사, 3교시 강부호 목사, 4교시 노치형 목사가 설교한다. 문의: 02-3215-3523

당회

일시: 2026년 11월 14일(토) 오전 6시
장소: 양재 기쁨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협동, 명예장로
안건: 2027년 장로선출투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안

전도_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 5면 | 기독문화_ 한 권의 책을 읽고 7면 |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_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8-9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사사기 강해(7)
성공이 더 위험합니다

사사기 7:1~8

〈사사기〉 6장은 두려워 숨어 있는 자를 찾아 세워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다음 장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부수고 난 뒤 일어난 일입니다. 미디안과 동쪽 지역의 지파들, 아말렉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입니다. 숨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옷처럼 덧입고 담대하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3만 2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년 동안 동굴에 숨어 살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한 사람을 부르신 것 같지만, 그를 통해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3만 2천명이 함께 나섰을 때 백성들도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숫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양털만 물에 젖게 되고 그 주변의 땅은 다 마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변만 다 물에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 주십시오"라며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구하는 표적대로 응답해 주시며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도온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 위해 표적을 여러 번 보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롯 샘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많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심이 되고, 적게 모이면 불안합니다. 통장의 숫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승리 이후가 더 위험하다

첫째, 하나님은 패배보다 승리 이후를 더 위험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그 백성들이 상대해야 할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2절).

기드온이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이 너무 많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우리 편이 너무 많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3만 2천 명으로 상대하기에도 벅찬 13만 5천 명이 대적인데, 하나님은 왜 왜 많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미디안의 숫자를 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험하게 보신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였습니다. 승리한 다음 날 이스라엘이 하게 될 말이었습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은 이 말을 경계하신 것이고, 이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과 그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보장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 이후에 그들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공 이후에 빠지게 될 위험을 미리 없애기 위해 자만심과 교만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넘겨진 이유는 비와 수확을 약속하는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이 이제 3만 2천 명으로 이기고 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디안에게서 건짐을 받아도 우상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에서는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우상숭배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을 믿는 우상도 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내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굶주림보다 가나안의 배부름을 더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배부름이 가져오는 영적 위험을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전쟁터에서 또 주고 계십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가 18세기 영국 국교회에서 시작한 메소디스트(Methodist) 운동이 오늘날의 감리교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이 영국 전역에 퍼졌을 때 그는 매우 비관적인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부흥이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메소디즘에 대한 생각(Thoughts Upon Methodism)〉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에서든 미국에서든 언젠가 사라질까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운 것은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죽은 분파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지녔던 교리와 정신과 규율을 함께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장입니다.

"나는 두렵다. 재물이 늘어난 곳마다(예외는 지극히 드물다) 신앙의 본질, 곧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마음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참된 신앙의 부흥이 어떻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 사물의 이치상 알지 못하겠다. 신앙은 반드시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낳고, 이 둘은 재물을 낳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재물이 늘어나면 교만과 분노와 온갖 모양의 세상 사랑도 함께 늘어난다. 그렇다면 메소디즘, 곧 마음의 신앙이 지금은 푸른 월계수처럼 무성하다 해도 어떻게 이 상태로 지속될 수 있겠는가? 메소디스트들은 어디서나 부지런하고 검소해지고 그 결과 재산이 늘어난다. 그만큼 교만과 분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늘어난다. 신앙의 모양은 남아 있어도 그 영은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

존 웨슬리는 메소디스트가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성공한 메소디스트였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과 같은 것을 존 웨슬리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수를 줄인 이유

둘째,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하신 일은 바로 사람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수가 될 때까지 줄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만 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3절).

"두려운 사람은 다 떠나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합당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서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며 물가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로 구분합니다. 그때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먹는 자가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300명만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는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을 기대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더 적은 수를 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 의미를 두고 사람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쪽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 정예부대를 뽑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수치까지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00 대 13만 5천 명이 된 것입니다.

종종 이 말씀을 근거로 ‘기드온의 300 용사를 본받자’, ‘깨어 있는 소수가 되자’는 메시지로 이용하는데,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아닙니다. 300명이라는 소수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를 프로그램화해서 “우리는 300명으로 이런 일을 해냈다”라고 말하면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의도적으로 줄이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7절).

하나님이 끝까지 경계하시고자 한 것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약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충분히 약해졌을 때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을 보충해 주시고, 친히 싸우셨다!

셋째,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충해 주시고 친히 싸우셨습니다. 300명이 손에 든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고 간 양식과 나팔, 항아리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8절).

그들은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평원 아래쪽에는 13만 5천 명이 있고, 300명이 그 위에 있는데, 칼과 창이 아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습니다(10절).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3만 2천 명이 있었더라면 덜 두려웠을 텐데, 그것을 300명으로 하나님이 줄이셨으니 기드온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확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던 기드온인데, 사람을 300명으로 줄었으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기도 전에 그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적진 가까이 내려가 들어 보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한 병사가 말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그 장막을 무너뜨렸다.”

다른 병사가 해석합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미디안을 그의 손에 주셨다.”

적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전투가 벌어집니다. 300명은 한 손에 나팔을, 한 손에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 양손에 무기가 아닌 것들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외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이 외치면서 속으로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칼이 없는데도 항아리를 깨뜨리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 군대가 자신의 칼로 서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을 외쳤지만, 미디안은 서로 칼을 사용함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3만 2천 명을 1만 명으로 줄이시고, 다시 300명으로 줄이심으로써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내 힘으로 이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려고

〈사사기〉 8장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사람을 바라보며 세웁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기드온을 높입니다. 기드온이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은 기도온에게 “당신이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기드온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정답을 말합니다(삿 8:22~23). 그런데 기드온에게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에게서 약탈한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주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삿 8:24).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디안이 금귀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삿 8:27).

여기서부터 기드온의 성공 이후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귀고리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어떤 이유이었든 우상이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위험하게 보신 것은 지나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 이후에 백성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여서 이기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또 기드온을 높였고, 기드온은 일면 잘 관리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상숭배를 만들어 내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 대항하는 백성을 300으로 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제로(Zero)’로 만드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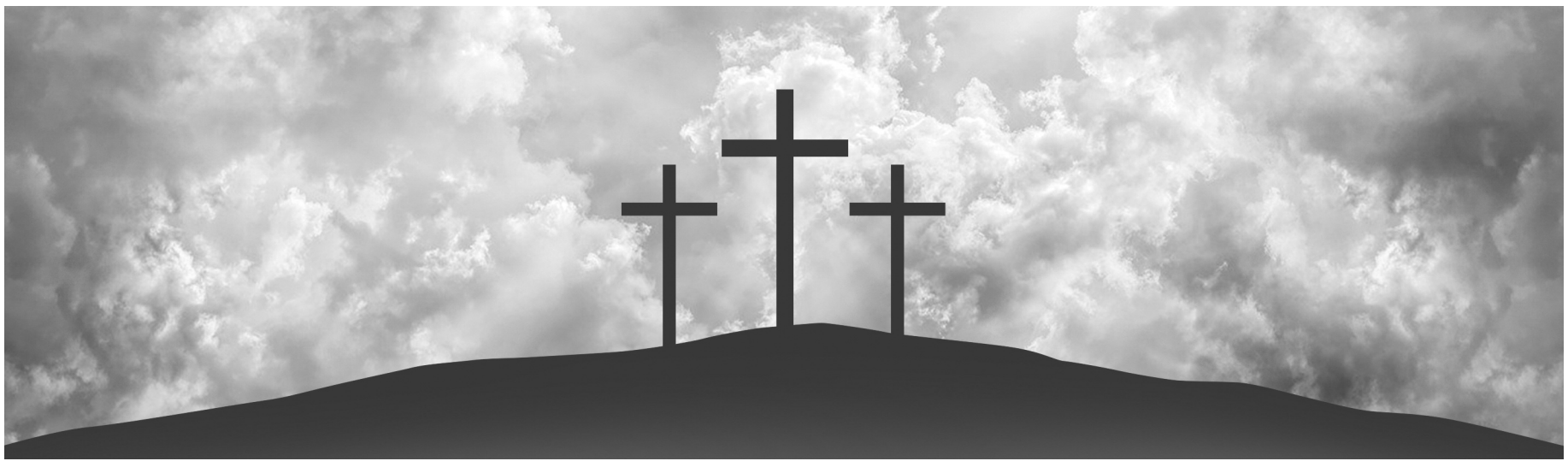
복음에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열심, 착함, 신앙 경력이 구원에 보탠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일이 잘되고, 성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성공을 위험하게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공 이후에 “내 손이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을 자랑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는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을 기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십시오”라는 고백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까?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 "인공지능은 머지않아 거의 모든 일에서 인간을 대체할 거야. 우리보다 똑똑하고 효율적이니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거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인공지능이 놀라운 발전을 보여 준 것은 사실이지만,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선정적인 주장은 AI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그 중대한 한계를 과소평가한다. 인간 정신의 고유성도 오해하고, 과소평가한다.

첫째, 인공지능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다. 비유적인 의미를 제외하면, 컴퓨터는 배우거나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이른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이미지와 텍스트 같은 방대한 정보를 처리해서 통계 모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충분한 자료가 입력되면 챗GPT 같은 AI 챗봇은 사용자의 요청에 답한다. 그러나 이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트랜지스터와 전자 저장 부품이 배우거나 이해하거나 생각하지는 않는다. 컴퓨터는 자신이 분석하는 데이터도, 사용자가 묻는 말도, 심지어 자신이 내놓는 답변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에서 결론을 도출할 뿐이다.

X의 AI '그록'은 프로농구 선수 클레이 톰프슨이 경기에서 보여 준 저조한 슛 성적을 요약하려 한 적이 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속으로 평소 안정적인 슛 실력을 보여 주던 톰프슨은 새크라멘토 킹스에 패한 이 경기에서 3점 슛을 열 번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록은 톰프슨이 "벽돌을 던졌다"라고 놀리는 팬들의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톰프슨이 실제 벽돌로 여러 사람의 집을 파손했다는 기사를 만들어 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간단했다. 그 농담을 이해할 누군가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AI가 언젠가 인간의 유머에 담긴 미묘한 차이를 더 잘 구별하게 되더라도, 농담을 듣고 웃지는 못할 것이다. 수학적 모형은 아무리 정신을 잘 흉내 내더라도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인공지능은 창조할 수 없다. 모방하고,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추정할 뿐이다. 이른바 '머신러닝'은 제공받는 '훈련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모형을 실제 세계와 비교해 검증할 능력이 없다. 생성형 AI가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설계자가 입력한 자료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결과물이다. 이 때문에 챗봇은 오류와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모형 붕괴'라는 현상을 경고하고 있다. AI가 생성한 자료로 점점 더 가득해지는 인터넷을 바탕으로 AI를 훈련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AI 모형이 자신이 내놓은 결과물을 다시 받아들이면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답변의 질이 떨어진다. 〈파퓰러 메커닉스〉는 한 연구팀이 머신러닝 모형을 그 모형 자체의 답변으로 열 세대에 걸쳐 훈련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AI는 처음에는 르네상스 시대 대성당의 고딕 복고 양식 건축에 관해 글을 썼다. 그러나 열 차례의 순환을 거치자 여러 색깔의 꼬리를 가진 산토끼에 관해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셋째, 인간의 지능은 컴퓨터와 다르다. 인간의 지능은 고유하다. 인공지능이 겉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AI를 떠올릴 때 상상하는 존재를 만드는 데에는 실제로 거의 진전이 없었다. 공상과학 작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의식이 있고, 상황에 적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을 발휘하는 존재를 말한다. 연구자들은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특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범용 인공지능', 즉 AG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컴퓨터 분야에서 지금까지 만들어 낸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심리학자 로버트 엡스타인이 몇 년 전 〈이온〉에서 주장했듯이 인간의 뇌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기호로 표현된 데이터의 형태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식을 불러오거나, 기억을 저장하지 않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표현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게 된 비유다. 과거 사람들이 정신을 증기기관이나 기계식 시계, 또는 일련의 관에 빗댄 것과 같다. 기술에 빗대어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이 뇌의 어디에 존재하는지, 애초에 뇌의 특정한 곳에 존재하기는 하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의식이 무엇인지조차 여전히 알지 못한다. 인간의 지능에 필적하거나, 우리처럼 의식과 의도를 지니거나, 참으로 창조적인 컴퓨터를 언젠가 만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공상과학에 깊이 물든 문화가 믿게 하는 것보다 훨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AI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거의 확실히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반복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에 의존하는 많은 작업에서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AI는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을 쓸모없게 만들 가능성도 작다.

* 이 글은 저자의 견해입니다. 〈온누리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다음세대

다음세대와 함께 걷는 길



류현모 교수
(온누리세계관학교)

요즘 아이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에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살아간다. 아이들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접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게 오늘날 다음세대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캐시 코크와 제프 마이어스가 지은 〈성 정체성이 명확한 자녀로 양육하기〉에서는 아이들의 성장에 이상적인 필요 요소로 '안전감(Security)', '정체성(Identity)', '소속감(Belonging)', '목적성(Purpose)', '역량(Competence)'을 제시한다.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한데, 먼저 아이들은 믿고 의지할 사람과 장소를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다음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생각하고, 자신을 받아 주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경험하며, 그 기반 위에서 삶의 목적과 역량을 발견할 수 있다. 자녀가 높은 역량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

놀이동산에서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를 생각해 보자. 눈앞에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어도 부모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모의 보호 아래 안전감과 소속감을 회복한 후에야 비로소 놀이동산에 온 목적을 깨닫고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에야 아이들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다.

아이들은 가정을 사랑과 신뢰가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식한다. 사랑하는 부모와 친밀한 형제자매 안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부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조부모와 친척, 교회 공동체의 친구들과 어른들로 그 안전 울타리를 넓혀 줘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참된 안전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전쟁 동안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문화 주도권(cultural hegemony)에서 찾았다. 당시 유럽 사회의 문화 주도권이 기독교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질서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문화의 중심인 가정과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기독교적 성 윤리를 무너뜨리는 성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계승한 사람들에 의해 20세기 중반 이후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에까지 성혁명의 영향이 확산했다.

성혁명주의자들은 성경의 성 윤리를 낡고 억압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규범의 해체를 인간의 해방을 위한 선이라고 주장한다. 선악이 전도된 성가치관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깊이 영향을 끼쳐 결혼생활을 뒤흔들었다. 그람시가 의도했던 것처럼, 부부 사이의 성적 신뢰의 상실은 가정의 안전을 흔든다. 부모가 불화하거나 깨어진 가정에서 아이들은 안전을 경험하기 어렵고, 부모가 친지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안전의 울타리를 확장해 주기는 더 힘들다. 결국 성혁명은 아이들의 영적·육적 성장과 역량 발달의 기반인 안전지대를 약화한다.

가정과 부모로부터 안전지대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의지할 데를 찾으려 한다. 이단 종교나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다른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술·담배·마약과 같은 물질 중독뿐 아니라 게임, 도박, 음란물, SNS, 쇼핑 등의 행위 중독도 아이들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 처음에는 작은 즐거움과 위안을 얻기 위해 시작하지만,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속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독의 문제를 아이들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어른들은 불안하고 외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 무엇에서 위로를 얻는가?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어른인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부모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안전을 회복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보여 주고, 궁극적으로는 안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위치에 있다.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까지 가정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양육하고, 마침내 하나님 손을 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 책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음세대를 단순히 가르치거나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 곁에서 함께 걸을 수 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영혼의 병까지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 전도대상자 등 286명 참석
결신 36명, 18명 세례 신청, 국내외 의료봉사 신청 54명







2026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의 마음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지셨다. "영혼의 병까지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애끓는 권면이 의사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가 지난 11월 2일(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올랐다. 전도대상자 106명과 초청자 및 봉사자 180명 등 총 286명이 참석했다. 전도대상자 106명 중에서 36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18명이 세례를 신청했다. 54명은 국내외 의료봉사를 신청했다.

오후 6시 50분, 의사맞춤전도집회 참석자들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다. 오후 7시 40분, 오프닝 영상이 상영되고, 사회자 방송인 김원희가 등장했다.

의사맞춤전도집회 첫 순서는 가수 범키의 공연이었다. 'There Is None Like You', '공감하시네'를 찬양했다. 박진아 작가의 샌드 애니메이션과 가스펠 보컬팀 크룩스의 '행복을 주는 사람', 'You Raise Me Up', '푸니쿨리 푸니쿨라', 'Goodness of God' 공연이 이어졌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당신을 고치러 오신 의사'(눅 5:31~32)를 주제로 전했다. 이 목사는 "사람의 병에는 '몸의 병', '마음의 병', 죄라고 하는 '영혼의 병'이 있다"면서 "환자가 의사를 믿는 것처럼, 영혼의 병까지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생에 초대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피날레는 초청자가 전도대상자에게 쓴 편지 낭독과 결신 및 화관 증정,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의 축복기도가 장식했다.

강윤형 성도(OCC공동체)는 "병원에서는 환자를, 가정에서는 자녀를 책임지는 의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대상자를 초청했다"면서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부지런히 움직이겠다"고 다짐했다.

전도대상자 정경희 자매는 "다양한 공연을 보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축복받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다"면서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를 계기로 예수님과 성경을 본격적으로 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초청자가 전도대상자에게

내가 형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

H형!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해 줘서 고마워. 우리가 레지던트 1년 차 때 만났으니까 벌써 알고 지낸 지 27년이나 되었네. 세월 참 빠르다, 형.

참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레지던트라고 휴일도 없었고, 병원 밖으로는 잘 나가지도 못했지. 몇 날 며칠을 당직실 2층 침대 위아래에서 번갈아 가면서 같이 자고, 정말 가족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 그 시절에는 밥때를 놓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 새벽 두세 시에 방이동 먹자골목에 가서 남들이 3, 4차 술판을 벌일 때 우리는 그 옆에서 밥이 함께 나오는 안주인 감자탕을 먹었던 기억도 나. 그 새벽에 먹던 감자탕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라.

형! 돌아보면 고마웠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의 일상은 제대로 된 휴가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였고, 자기 일도 다 끝내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기 일쑤였잖아. 그렇게 바쁜 시기에 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부산에 내려갔을 때, 나는 일주일이 넘도록 병원에 오지 못했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들 때문에 복귀할 수가 없었지. 그때 형이 내 일까지 다 맡아 줬어. 그때 형이 내게 이렇게 말해 줬어.

"괜찮아. 애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형, 이 말을 해 줬던 거 기억나? 자기 일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형은 내 아이 걱정부터 해줬어. 사실 그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 형, 미안했고 고마웠어.

그때도 기억나? 신혼 때 내가 정말 돈이 없었잖아. 봉천동 작은 빌라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형이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갔었지. 그때 형이 내게 돈을 빌려줬어. "이 정도 돈도 없이 결혼했냐"라고 농담으로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형은 내 자존심을 지켜 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말없이 형수님을 통해 돈을 빌려줬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

치프 레지던트 때 내가 한번 엄청 늦게 온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 새벽에 아들이 급성 인후염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오느라 늦었던 것 같아. 그날 내가 해야 했던 입원환자 아침 회진 보고를 형이 대신했었어. 형은 다른 파트를 맡고 있었던 터라 입원환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는데 나 때문에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다가 엄청 혼이 났었지.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미안했어. 형은 언제 적 일이냐며 그날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고맙게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너무 친해서 그런지 내가 진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네.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형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내 마음에 남아 있었어.

형, 오늘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에 와 줘서 정말 고마워! 너무나 고마운 형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형이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겠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형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야.

2026년 11월 2일 의국 동기이자 동생인 상엽 씀.



윤상엽 집사
(분당B공동체)

군 장병을 향한 '1,000번의 기도'

그들을 향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김동수 장로
(군선교팀 담당장로)

군선교 기도모임이 2026년 11월 7일(토) 1,000회를 맞이했다.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시작한 기도가 천 번의 기도로 이어졌다.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들으신 수많은 기도와 20여 년을 끝없이 장병들을 섬겨온 동역자들의 눈물과 헌신이 가득 담겨 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군부대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함께 걸어온 믿음의 흔적이다.





군선교, 멈출 수 없는 사명

내가 군선교를 접하게 된 계기는 한 신병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서 그 장병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앞으로의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속 아픔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장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 군선교는 교회에 나오도록 권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한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곁에서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기도였지만, 그 장병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군선교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다.

또 하나의 기쁨은 예배에 익숙하지 않았던 장병들이 찬양을 부르며 마음을 열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어하던 청년들이 함께 웃고 찬양하며 공동체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모습은 섬기는 우리에게 큰 힘과 감동을 준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배의 찬양은 닫힌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

군대 교회의 역할과 사명

"왜 지금, 이 순간에도 군선교의 손길이 필요할까?"

군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다. 서로 다른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함께 생활한다. 군에서 장병들은 책임과 인내,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는 동시에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 가족과 친구들한테서 떨어져 지내는 시간 속에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견뎌야 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이때 군에 있는 교회는 장병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는 곳이어야 한다. 군 교회에서 만나는 한 사람의 진실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장병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과 교제는 군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때로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군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다가가고, 먼저 귀 기울여 들어주며, 삶으로 복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장병에게는 복음을 처음 만나는 기회가 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던 장병에게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 이미 믿음을 가진 장병은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군선교의 열매와 영향력

군선교의 열매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예배에 참석했던 장병이 전역한 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군 생활 중 들었던 말씀 한 구절, 함께 불렀던 찬양 한 곡,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의 손길은 그 장병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의 씨앗을 꾸준히 심는 것이다.

군선교는 군부대 안에서만 끝나는 사역이 아니다. 군 생활 중 복음을 접한 장병이 전역 후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영향력은 한 사람을 넘어 이웃과 공동체로 이어갈 수 있다. 청년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미래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선교는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이자,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이다. 이 사명을 군부대의 몇몇 목회자와 군선교사, 군종병들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다.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 군 교회와 군종목사, 군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며, 필요한 자원을 나누고, 전역 후에도 청년들이 지역교회와 신앙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이어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장병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군선교 기도모임, 1,000회로 끝이 아니다!

군선교 기도모임은 1,000회로 끝이 아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다. 지금까지 1,000회의 기도가 앞으로 2,000회 기도로 이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은 장병을 품는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 온 모든 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드려진 기도와 눈물이 군부대 곳곳에 복음의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군선교 현장에서 한 장병이 눈물로 기도하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 청년의 모습이 내게 군선교의 이유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한 영혼이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다려 주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군선교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성경은 말씀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살전 5:17).

1,000회의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누군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새로운 사역자들이 모여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 곁에 수많은 청년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군부대에 위로가 필요한 청년이 있고, 삶의 방향을 찾는 청년이 있으며, 복음을 들어야 할 청년이 있다. 군선교는 선택적인 봉사가 아니다. 다음세대의 영혼을 품는 교회의 소중한 사명이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군선교 기도모임 1,000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1,000번의 기도가 1,000명, 10,000명의 장병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모든 군부대에 복음의 희망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앞으로도 장병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장병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 명의 장병을 향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1,000번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는 다음세대를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

문의: 김동수 장로(010-6340-5234), 박재수 팀장(010-3225-3820)

한 권의 책을 읽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자리: 〈부모 전도 101〉이 그리는 '개성화의 여정'

여성민 목사의 〈부모 전도 101〉은 겉으로는 기독교 전도 서적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노년기 부모의 정서와 가족 간의 관계 역동을 깊이 있게 다룬 실전 상담심리학이자, 성경적 개성화의 지침서에 가깝다. 이 책은 부모와 자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리적 갈등을 소통 기법과 자아 통합의 여정이라는 심리학적 틀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그 밑바닥에 〈누가복음〉 15장의 오래된 이미지 하나를 깔아둔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는(눅 15:20) 바로 그 장면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클라이맥스는 아들의 회개가 아니다. 아버지의 '달려감'이다. 이 책이 말하는 "복음의 첫 문장은 '믿으세요'가 아니라, '미안해요'"(01번)라는 조언은 결국 자녀에게 그 아버지의 달려감을 대신 살아내라는 요청이다. 전도란 진리를 던지는 일이 아니라, 늙으신 부모를 향해 먼저 체면을 버리고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일이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는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할 상실, 죽음에 대한 불안 등 다층적인 무력감을 경험한다. 에릭슨의 발달단계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는 '자아통합 대 절망의 단계'다.

〈시편〉 90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는 원래 부모 혼자의 것이었으나, "부모님의 '과거'를 인생의 면류관으로 예우하세요"(09번)라는 책의 조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자녀와 부모 두 사람의 기도가 된다. 삶의 궤적을 인정받은 부모는 정서적 안정을 얻고, 죽음의 공포를 소망으로 재구조화하며 온전한 자아 통합으로 나아간다. 융 심리학적 관점으로 확대해 보면, 부모와 자녀의 전도 갈등은 각자의 그림자가 충돌하는 현장이다. 부모가 보이는 거친 거절이나 "너나 잘해"(82번) 같은 공격은 평생 쌓아온 신념과 숨겨진 상처라는 그림자의 방어기제이다. 그 뒤편에는 자기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자의 두려움이 있다.

"부모님의 거절은 '거부'가 아니라 '두려움'의 신호입니다"(08번)라는 통찰은 상대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수용하도록 이끈다. 자녀가 그 두려움 앞에서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조급함은 전도의 가장 큰 적이니 하나님의 속도를 믿으세요"(85번)라는 조언이 비로소 살아있는 말이 된다.

이 책은 자녀가 직접 소통할 때 발생하는 권위의 도전 충돌을 피하려고 '삼각관계 이론'과 '제3자 효과'를 적극 활용한다. 〈룻기〉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건넨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룻 1:16)라는 말은 교리의 언어가 아니라 동행의 언어였다. 룻은 나오미를 설득하지 않았다. 다만 곁에 머물렀다.

"때로는 자녀보다 '낯선 이의 한마디'가 더 깊게 박힙니다"(51번)나 "배우자를 부모님께 가는 가장 가까운 통로로 세우세요"(55번)라는 지침은 이 모압 여인의 침묵하는 신실함과 닮아 있다.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드리세요"(62번)라는 '부메랑 요청법'은 부모를 가르침 받는 피전도자가 아닌, 자녀를 돕는 유능한 보호자로 위치시킨다. 이는 부모의 자존감을 세워 줌과 동시에 마음 깊은 곳 '아니마'와 '아니무스' 속 돌봄과 사랑의 원형을 깨우는 정교한 역발상 전략이다. 언어와 태도의 전환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동기 강화 상담'과 '인지행동치료'의 원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풍경과 겹친다. 예수는 분주한 마르다를 꾸짖지 않고, 다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눅 10:42) 말씀하셨다.

노년의 부모 역시 오랜 세월 마르다처럼 의무와 역할과 체면이라는 부엌에 서 있었다. "평소 쓰시는 단어 속에 복음을 얹으세요"(11번)나 "'회개'보다 '안식'을 이야기하세요"(14번)라는 조언은 더는 일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자리(마리아가 앉았던 그 발치의 자리)를 부모에게 되돌려주는 언어적 통역이다.

'설득 심리학' 측면에서는 '문안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 철저히 이행된다. "맛있는 밥 한 끼가 열 번의 설교보다 강력합니다"(22번)나 "한 번의 큰 효도보다 열 번의 '정기적인 안부'가 강력합니다"(65번)처럼, 거창한 집회 참석 대신 정기적인 안부 전화, 찬송 한 곡 들려드리기 등 부담 없는 자극을 지속 노출해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춘다. 신학은 나중에 온다. 먼저 오는 것은 저녁마다 곁에 눕는 일이다.

집안 내부의 복잡한 역동과 고난의 순간을 다루는 부분은 가족 시스템 치료적 깊이를 더한다. "제사 대신 품격 있는 추모예배로 가족의 문화를 바꾸세요"(35번)나 "명절은 갈등의 장이 아니라 섬김의 장이어야 합니다"(48번)처럼 집안의 전통과 문화적 갈등을 지혜롭게 중재하도록 돕는다.

질병이나 수술, 요양원 입원 등 생의 취약한 순간("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울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리세요", 76번)에는 정서적 안전지대를 제공함으로써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든다. 이때 자녀는 대문 앞에 서서 먼 길을 바라보던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

종합해 볼 때 이 책은 단순한 교리 주입서가 아니다. 한국 부모 문화와 효 문화라는 심리적 맥락 위에 부모라는 수신자의 심리적 채널에 맞춰 마음의 문을 여는 정교한 소통 기술서이다. 자녀가 자신의 조급함을 다스리고 부모라는 거대한 타인을 깊이 이해해 가는 융 심리학적 개성화 과정의 성숙한 지침서다. 그 모든 기법의 밑바닥에는 결국 하나의 이미지만이 남는다. 저녁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조급함 없이 매일 켜두는 마음. 전도란 논쟁에서 이기는 일이 아니라, 늙어가는 이의 옆자리에 등불 하나를 조용히 놓아두는 일이며, 아직 거리가 먼데도 먼저 달려 나가는 아버지의 걸음을 자녀가 대신 걷는 일이다.



조경희 권사
(한강공동체, 특수교사)

회복사역본부 관계기술훈련 아웃리치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도 예뻐"

"남편이 모처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니 남편을 다시 품게 됐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난생처음 감사일기를 쓰면서 기쁨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게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린 삶이 예수님과 헤세드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였습니다."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그랜드리조트에서 열린 '관계기술훈련'에는 이런 고백이 가득했다. 10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부부와 현지 목회자, 리더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강의장을 가득 메웠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눈물로 목양해 온 이들은 관계기술훈련을 낯설어했다. 그러나 '관계회로 열기', '기쁨 나누기', '감사하기', '고통 속에서 마음의 핵심가치 찾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등 실습이 이어질수록 억눌러 온 상처와 트라우마가 쏟아져 나왔다. 부부 등



몽골 목회자와 리더들이 이기원 목사 강의에 맞춰 파트너와 '기쁨 나누기' 등 실습을 하고 있다.

파트너와의 나눔 자체가 치유였다. 강의가 거듭될수록 열기가 뜨거워졌다. 임마누엘의 임재 안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치유받는 집회였다. 강의를 진행한 이기원 목사는 "몽골 목회자들의 열정과 관심이 놀라웠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참가자들을 10개 조로 나눠 진행했다. 한 조는 대부분 이혼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자매들이었다. 아픔이 깊은데도 잘 웃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몸으로 드리는 '조이워십' 중 한 자매는 주님이 "너도 예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눈물을 쏟았다고 고백했다. 다른 자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느꼈다"고 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은 동작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는 워십은 모두를 하나로 묶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마 11:28).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몽골 목회자들의 무거운 짐을 받아 주시고 쉼을 허락하셨다.

또 다른 은혜는 온누리M센터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안산, 평택M센터에서 양육받은 이들이 몽골로 역파송돼 리더급 목회자로 세워지고 있었다. 돌봄과 훈련이 만나는 '하이브리드 교회'가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했다.

교재를 몽골어로 번역한 최호림 장로는 "회복사역과 관계기술의 씨앗이 몽골에 심긴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이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거목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몽골에서 열린 이번 관계기술훈련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뤄지는 현장이었다. 척박한 땅에 뿌려진 회복의 씨앗이 헤세드공동체 안에서 공감받고 수용되는 기쁨으로 풍성히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사도행전〉 29장이 몽골에서 계속 쓰이기를 기도한다.



이의춘 집사
(회복사역본부 팀장)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나는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온누리교회가 다음세대를 제자로 세워 가는 하나의 이정표



박태성 장로
(온누리교회 미래성장위원회, 서초A공동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제자로 살아가고, 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은 교회가 한 번도 내려놓은 적 없는 사명이다. AI가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온 지금,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까? 온누리교회 미래성장위원회가 이 물음을 안고 성도들에게 제자도의 이해와 실천, 그리고 AI 시대의 신앙에 관해 물었다.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실시했다. 총 3,061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정보, 제자도 이해, 말씀 묵상(QT), 전도, 일대일제자양육, AI와 신앙, AI 시대 교회의 역할 등 일곱 개 영역, 3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 글에서는 문항별 응답 현황과 집단별 차이, 문항 간 연관성을 살펴본 다음, 교회가 나아갈 교육과 사역의 방향을 제안한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는 여성 1,856명(60.6%), 남성 1,205명(39.4%)이었다. 연령은 5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60대 24.8%, 40대 17.1%, 20대 9.9%, 30대 9.7%, 70대 이상 7.2% 순이었다. 10대는 5명(0.2%)에 그쳐 연령집단 비교에서는 제외했다.

온누리교회 출석 기간은 20년 이상이 33%로 가장 높았다. 신앙생활 기간은 40년 이상이 39.6%, 30년 이상이 61.4%에 달했다. 스스로 평가한 신앙 수준은 4단계가 39.5%, 3단계가 39.4%로 두 단계를 합하면 78.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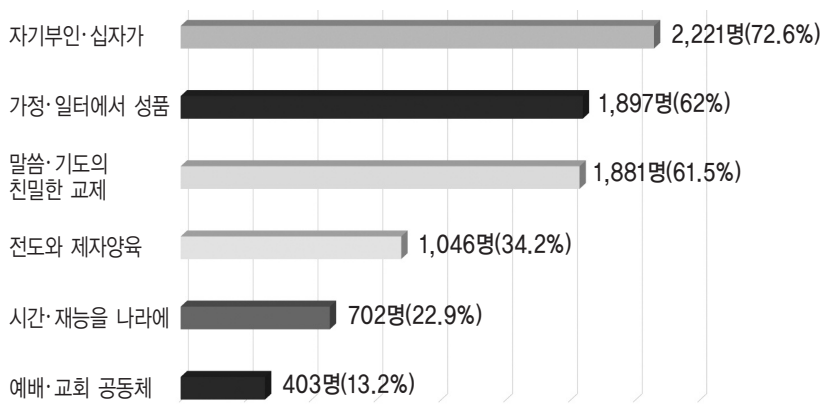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진 중장년 성도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20대~30대의 응답을 합치면 19.6%로, 젊은 세대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었다. 신앙 수준은 자기평가이므로 실제보다 높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제자도의 이해와 성장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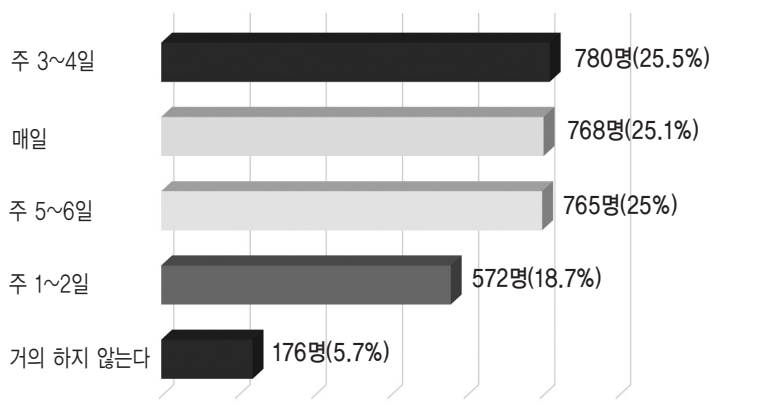
제자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34.8%)거나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13.7%)고 답한 성도는 48.5%였다. “어느 정도 이해한다” 40.2%,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1.2%였다.

제자도의 핵심으로는 “자기 부인·자기 십자가·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72.6%로 가장 많이 꼽혔고, “가정·일터·이웃 관계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62%), “말씀·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61.5%)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도와 제자 양육을 실천하는 삶”은 34.2%, “예배·교회 공동체에 성실한 참여”는 13.2%에 머물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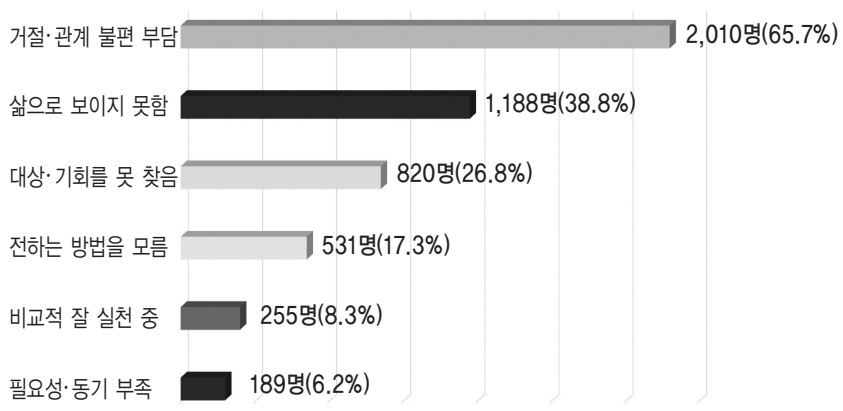
제자도의 핵심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그림 1〉



말씀 묵상(QT) 실천 빈도 〈그림 2〉



전도의 어려움(복수응답) 〈그림 3〉



성장하고 싶은 영역으로는 ‘가정·일터에서의 예수님의 성품’(59.4%)과 ‘기도·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57.6%)가 가장 높았고, ‘전도’(15%)와 ‘일대일제자양육’(8.7%)을 꼽은 성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AI 시대 성경적·영적 분별력’을 선택한 성도도 28%에 달했다. 이는 성도들이 제자도를 내면의 순종과 관계 속의 성품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으나, 전도와 제자 양육 같은 사역적 실천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말씀 묵상의 실천과 장벽

QT와 개인 말씀 묵상을 주 5일 이상 하는 성도는 50.1%(매일 25.1%, 주 5~6일 25%)였고, 주 3~4일이 25.5%, 거의 하지 않는 성도는 5.7%였다〈그림 2〉.

QT를 하는 이유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73.2%)와 ‘말씀을 통한 삶의 인도·변화’(71.1%)가 가장 높았고, ‘교회와 공동체의 권면 때문’이라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규칙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시작은 하지만 습관으로 정착·지속하기 어려움’(35.3%)과 ‘바쁜 일정’(22.3%)이 많았고, ‘필요성 및 동기 부족’(3.9%)이나 ‘방법을 모른다’(2.4%)는 응답은 매우 낮았다.

교회에 바라는 지원으로는 ‘성경의 배경·문맥 이해 교육’(31.2%), ‘온라인 QT 콘텐츠·자료’(26.2%), ‘QT를 나누는 소그룹’(22.7%) 등을 꼽았다. 따라서 QT의 중요한 과제는 ‘왜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지속하며 삶의 순종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돕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도, 제자양육의 현실과 지원

최근 1년 동안 복음 전파나 교회 초청 경험이 전혀 없는 성도는 25.4%였다. 연 1~2회가 46.2%로 가장 많았고, 일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천하는 성도는 16.5%였다.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은 ‘거절·관계가 불편해질 부담’이 65.7%에 달했고, ‘전도의 필요성·동기 부족’은 6.2%에 불과했다〈그림 3〉.

전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대상과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전도 훈련’이 52.9%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봉사 등 이웃과 만날 기회’(28.7%)와 ‘디지털 미디어·AI 활용 전도 교육’(22.4%)이 뒤를 이었다.

제자양육은 ‘현재 양육 중’(17.6%)이거나 ‘양육 경험이 있는’(39.8%) 성도가 57.4%로 절반을 넘었다. 다만, 양육을 받았으나 타인을 양육한 경험은 없는 성도가 24.2%였고, 양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성도는 9.9%였다〈그림 4〉.

제자 양육의 어려움은 ‘바쁜 일정으로 정기적 시간 확보 어려움’(30.4%), ‘지속적 양육의 책임과 부담’(30.3%), ‘양육자로서 자신감 및 준비 부족’(26.1%) 순이었고, 제자 양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양육자와 동반자의 체계적 매칭’(36.3%)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도와 제자양육에서 지식이나 동기뿐 아니라 관계의 부담, 시간 확보, 지속적인 동행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양육 받은 성도(동반자)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제자(양육자)로 성장하도록 연결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I의 활용 현황과 신앙적 인식

생성형 AI를 거의 매일 사용하는 성도는 48.8%, 주 1회~3회 사용하는 성도는 22.8%였고, 사용하지 는 성도는 7.6%에 그쳤다〈그림 5〉.

AI의 주된 사용 목적은 ‘정보 검색·요약’(79.4%), ‘업무·학업’(50.6%), ‘글쓰기·문서 작성’(31%) 순이었고, “QT 및 성경공부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15.3%였다. AI의 정보와 조언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자주 활용하거나 의존한다”는 응답(27.3%)과 “참고하는 경우가

다소 늘었다"는 응답(44%)을 합하면 71.3%로, AI가 일상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앙적인 고민을 AI에게 질문하거나 상담한 경험이 있는 성도도 38.8%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AI가 신앙의 중심을 대신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AI의 답변이 "기도와 말씀의 영적 깨달음을 어느 정도 이상 대신할 수 있다"는 응답은 26.1%였고,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45.9%)와 "절대 대신할 수 없다"(28%)는 응답을 합하면 73.9%였다.

QT 및 성경공부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적'(38.7%) 또는 '제한적'(28.2%)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66.9%였고, 설교 준비에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기도와 말씀을 중심에 두는 조건에서 허용"하는 응답이 88.3%였다. 이러한 결과는 AI가 이미 성도들의 일상과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지만, 다수의 성도가 AI를 기도와 말씀 묵상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돕는 보조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세대에 대해서는 "질문·사고·판단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80.7%, "관계·소통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73.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AI에 대한 의존이 점차 커지는 환경에서 다음세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거나,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소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성도들의 깊은 우려를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교회가 우선 강화해야 할 교육으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영적 분별력 훈련'(57.5%)과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AI 분별 교육'(51.5%)이 상위를 차지했다.

집단별 차이와 연관성

성별 차이는 AI 영역에서 가장 컸다. AI를 거의 매일 사용하는 비율은 남성 57.7%, 여성 43%였다. "QT와 성경공부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또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응답은 남성 34.1%, 여성 17.9%였다<그림 6>.

연령에 따라서는 양육 참여의 차이가 가장 컸다. 타인을 양육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양육 중인 비율은 20대 12.9%, 30대 19.4%, 40대 44.4%, 50대 67.7%, 60대 80.6%였다.

AI를 거의 매일 사용하는 비율은 30대에서 71.2%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는 24%로 낮아졌다. 반면, 매일 QT를 하는 비율은 20대 8.9%에서 70대 38.9%로, 일상에서 전도를 실천하는 비율은 20대 7.6%에서 70대 37.6%로 높아졌다<그림 7>.

젊은 세대의 높은 AI 활용과 중장년층의 상대적으로 활발한 제자도 실천이 대비되지만, 연령별 차이에는 신앙생활 기간과 생애 단계 등의 영향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제자도 이해, 하나님의 뜻 반영, QT, 전도, 양육 실천이 함께 높게 나타났다. 4단계의 36.3%가 매일 QT를 했지만, 2단계는 8.8%였고, 전도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2단계 48.3%, 4단계 13%였다. 반면, AI 신앙 상담 경험은 신앙 단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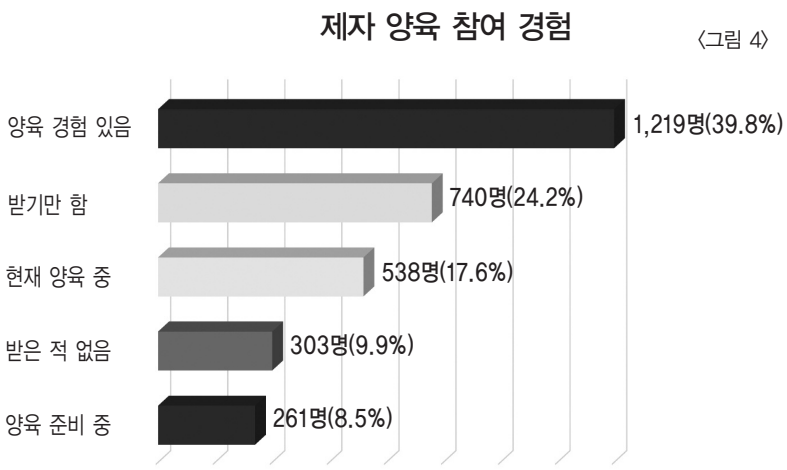
문항 사이의 연관을 보면, 신앙의 이해와 실천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제자도를 매우 잘 이해한다는 응답자의 47.1%가 매일 QT를 했지만, 이해가 낮은 응답자는 9%였다. 매일 QT를 하는 성도의 31%가 일상에서 전도를 실천했지만, QT를 거의 하지 않는 성도는 7.4%만 이 일상에서 전도를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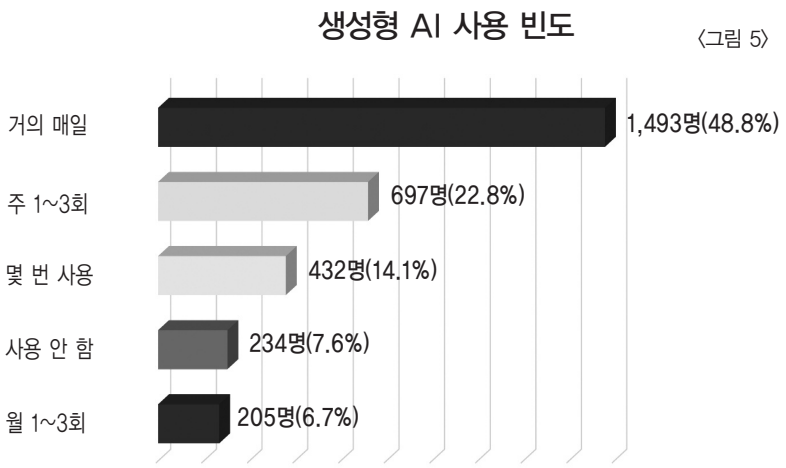
AI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AI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비율도 높았다. 매일 사용하는 성도는 40.4%, 주 1~3회 사용하는 성도는 22.1%가 AI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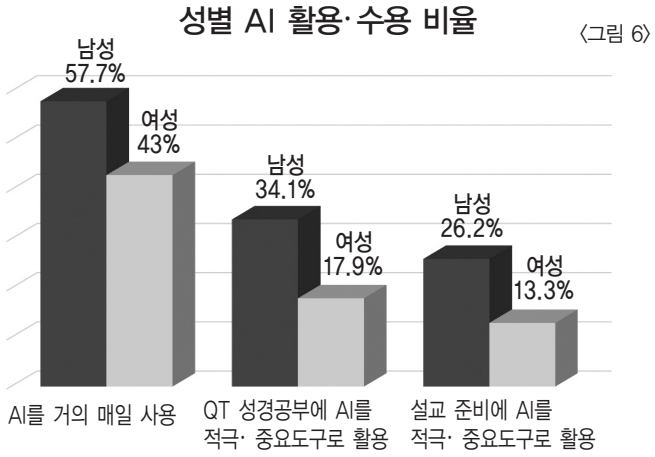
AI 사용이 잦을수록 신앙 고민을 AI와 상담하는 경향도 높았고, 신앙 상담에 AI를 더 많이 활용하는 성도일수록 AI가 영적 깨달음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비율도 높았다. 그 비율은 상담 경험이 많은 집단에서 31.8%,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3.6%였다. 다만, 판단 근거 활용 문항은 일상의 판단을 묻는 것이므로, 영적 결정을 AI에 맡기는 비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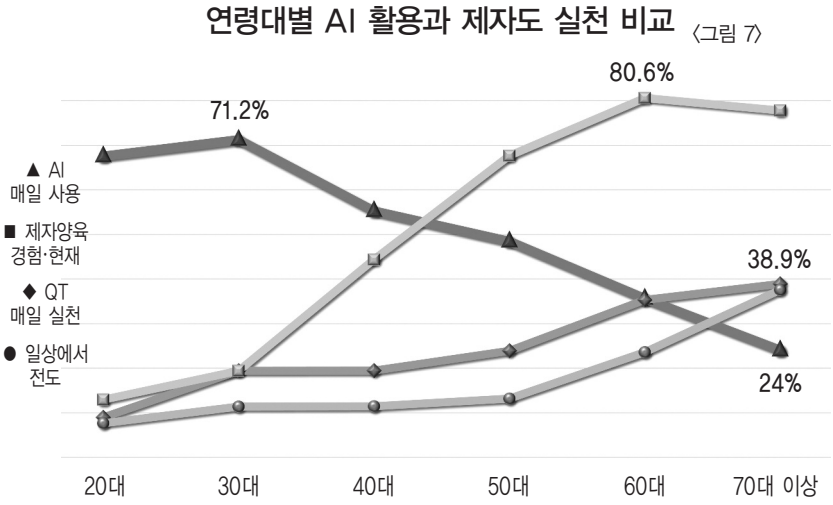
종합하면, 말씀 묵상, 신앙적 순종, 전도와 제자양육 실천은 서로 연관되어 나타났고, AI 사용은 AI에 대한 판단 의존, 신앙 상담 경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반면, 신앙 단계와 AI 활용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제자도 실천과 AI 활용이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의미이지, 두 영역이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결과는 횡단면 설문에서 관찰된 연관성이므로 인과관계로도 해석할 수 없다. 집단의 평균적 경향을 근거로 개인의 신앙 성숙도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









AI 시대,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이번 설문조사는 성도들이 제자도의 중심을 '말씀과 기도', '자기 부인'과 '순종'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전도와 제자양육,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AI 시대에도 제자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본질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교회의 교육과 훈련 방식은 새로워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말씀에 근거한 분별을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성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영적 분별력 훈련'(57.5%)을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꼽았다. QT의 주요 장벽은 '습관 정착과 지속의 어려움'(35.3%)이다. 따라서 말씀의 이해와 묵상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함께 다루고, 작은 실천을 지속하도록 공동체와 멘토가 동행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젊은 세대의 신앙 성장과 제자도 실천을 도와야 한다. 매일 QT하는 비율은 20대 8.9%, 타인 양육 경험이 있거나 양육 중인 비율은 20대 12.9%에 그친다. 말씀의 기초와 묵상 습관을 지원하고, 청년과 직장인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양육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 20~30대의 응답이 19.6%에 그친 만큼,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별도로 듣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전도와 양육의 장벽을 낮추는 구조를 세워야 한다.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은 '관계의 부담'(65.7%)이고, 양육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체계적인 매칭'(36.3%)이었다.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양육자와 동반자 성도를 연결하며, 양육자를 홀로 두지 않는 재교육과 상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모든 세대가 배우는 AI 분별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신앙 단계에 따라 AI 신앙 상담 경험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모든 성도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AI 사용이 많은 성도에게는 분별을, 익숙하지 않은 성도에게는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접근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람을 향한 돌봄과 공동체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신앙 고민을 AI에게 물어본 성도는 38.8%였지만, 교회가 우선 강화할 사역으로 'AI 관련 신앙 상담·목회적 돌봄'을 꼽은 응답은 3.6%, '신앙 고민을 나누는 소그룹'은 7.9%였다. 이러한 차이가 실제 필요의 부족 때문인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인지는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의 답변을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신앙의 고민이 목회적 상담과 공동체의 돌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a, 개역개정).

제자의 길은 변하지 않는다. 변해야 하는 것은 그 길을 걷도록 돕는 방법이다. AI 시대에도 제자는 말씀 앞에 머물고, 삶으로 순종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 간다. 이번 설문이 우리 각자에게 "나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온누리교회가 다음세대를 제자로 세워 가는 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슈(Issue) 바로보기!–성경적인 조직과 조직문화 5

업무수행, 치유와 회복, 분별력, 그리고 축복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할 때 가장 필요한 핵심은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나라와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사역을 위해서는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세상의 종의 멍에를 벗고, 구원받은 자유인과 청지기로서의 삶이 필요하다. 음녀의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여야 가능하다. 사람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순수성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 된다.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진성 리더십'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지식이 대중화되면서 순수성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치유와 회복에 의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이다. 넘치는 정보의 바다에서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 즉 분별력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판단력은 조직에 성과와 생명력을 가져다준다. 솔로몬은 수수께끼 같은 세상의 수많은 재판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일천 번제를 드린 후 소원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공생애 3년을 위해 30년 동안 지혜를 준비하셨다. 공생애 시작 전 다가온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순결함으로 마음을 모으고, 지혜로 판단(분별)한 다음 실행이 이루어진다. 실행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다(창 12:2~3). 시장에서의 거래는 항상 상대에게 이익이 되어야 진행된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을 축복하실 수 있다(창 22:18). 인류 역사에서 쌓은 모든 지식(big data)을 모아(AI 기술) 플랫폼을 만들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열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가 펼쳐졌다. 이 시대가 성경에서 약속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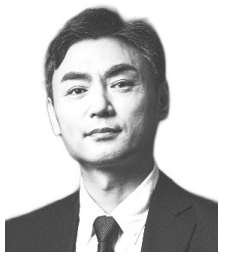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조직을 통해서도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한다. 오늘 흘리는 땀으로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은 과도하게 강조되어도 모자람이 없다. 또한 지도자는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열심으로 인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과 현실의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은 늘 양심과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 영적 분별력, 그리고 축복권 같은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조직의 발전: 평가와 배려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한 뒤 업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100%의 평가와 배려가 필요하다. 배려가 없는 냉정한 평가는 메마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고, 냉정한 평가 없는 배려는 무능한 조직문화를 만든다.

우리는 먼저 업무에 관해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전달할 때는 배려가 요구된다. 일을 잘하지 못한 직원에게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 전달하면 우리는 할 일을 했다는 마음과 함께 일부 불편한 느낌이 든다. 이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전달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리더에게는 자신과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목회자적인 마음과 접근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회를 맡기셨다. 우리의 모든 일은 예수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목표의 성취가 아니라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조직을 통해서도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세 번을 부인한 베드로의 연약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듯,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성진 총장
(OCC공동체, 한동대학교 총장)

크리스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모서리 덮어 주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 이불을 새로 바꾸려고 구경 다닐 때였습니다. 가게마다 이불이 똑같이 접혀 있었고, 직원은 여러 개를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새 이불은 다 예뻐서 적당히 골라 잘 샀는데, 제게는 이불을 펼치기 전 모습과 펼친 후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이불을 저렇게 정리해 두는 걸까?'

커다란 이불을 펼치면 보통 사각형입니다. 네 귀퉁이가 모두 뾰족한 직각 모양이죠. 이불 가게에서는 종이접기에서 '대문접기'라고 부르는 모양으로 양쪽을 가운데로 향해 접어 겹친 뒤, 길어진 양쪽도 다시 대문접기로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뾰족한 모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불 겉면과 충전재가 모두 보드랍고 보송보송해서 마치 둥둥 떠다니는 구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와 모든 이불을 그렇게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꺼내고 넣기도 좋고, 뾰족한 모서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좋았습니다.

저에게도 모서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움, 교만, 이기심…. 그러다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 7:19)는 말씀을 읽으며 펑펑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주 큰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듯한 하나님의 침묵은 저를 더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수많은 모서리를 잘 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숨겨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나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잊곤 합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입안에 감추고는 먹은 척하는 아이, 학습지가 하기 싫어서 한두 장씩 찢어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기는 아이, 문제집 뒤에 있는 정답을 보고 베끼고는 다 풀었다는 아이, 청소를 안 하고는 했다고 말하는 아이, 시험지에 받아 와야 하는 부모님 사인을 자기가 대신 해 온 아이, 교회에 간다고 해 놓고 가지 않은 아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의 이런 일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티가 나는 게 아이겠죠? 아이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 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르칠 건 가르치고, 덮어 줄 건 덮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가르칠 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도 아이에게 지나치게 차갑게 가르치고, 지난 잘못을 들춰 혼내곤 합니다.

"아이들의 부족함을 덮어 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돌이켜 보면, 저의 죄와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시고 감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일으키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자책과 우울로 헤매던 저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제 상황과 속마음을 다 알고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근한 이불 같습니다. 저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는 이불, 그리고 그 위를 부드럽게 토닥이는 손길입니다.

요즘 QT하며 〈에스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망각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레위인의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성전의 직무와 모든 시중과 그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겔 44:14)라고 하시며 다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며, 허물을 덮고 다시 곁에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저들에게도, 저에게도 깊은 신뢰나 충성됨이 없고, 죄와 회개가 오래도록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덮고 품어 주십니다.

사랑은 보통 자신이 받은 만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은 당연하게 여기고, 키우거나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노력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이들의 부족함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민혜 교사
(부천온누리교회, 석천초등학교, 〈야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편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를〉 저자)

제주온누리교회 전도집회 'New Beginning'

전도대상자, 목회자와 관계자 610여 명 참석, 28명 결신

제주온누리교회가 지난 10월 25일(일)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서 'New Beginning'을 주제로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전도대상자와 초청자, 제주온누리교회 성도, 김태용 목사(제주온누리교회 담당), 장동원 목사(예배사역본부장), 배순양 목사(제주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담당) 등 6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도집회는 장동원 목사 찬양, 배순양 목사 환영 인사, 마크 최 목사 '새로운 시작'(고후 5:16~6:2) 메시지, 결단 카드 작성, 환영 선물 전달, 김태용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채미현 성가사와 양재 뮤지컬 찬양팀, 제주온누리교회 차세대로 구성된 act29jr 합창단 특순도 이어졌다.


지난 10월 25일 개최한 제주온누리교회 전도집회 'New Beginning'.

마크 최 목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용 목사는 "전도집회 참가자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 이름과 소속을 얻고, 죄의 기록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11월 화요성령집회

'주님의 식탁'

11월 화요성령집회가 '주님의 식탁'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리고 있다.

11월 10일 이서진 목사 '회복의 식탁-다시 시작하라'(요 21:9~17), 17일 최대흥 목사 '나눔의 식탁-함께 나누라'(행 4:32~37), 24일 최성민 목사 '잔치의 식탁-초대에 응하라'(눅 14:15~24)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Love Dive' 참가자 모집

11월 14일 대학로 이룸 2층

크리스천 M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 프로그램 'Love Dive'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4일(토) 오후 1시 대학로 이룸 2층 안디옥홀(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진행된다. 개그맨 오지헌과 이서진 목사(여호수아청년부)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11월 12일(목)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회비는 3만 원. 20대 크리스천 대학생과 청년이 대상이다.

Love Dive는 하나님 안에서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고,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4880-4339

/ 박지혜 기자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은혜의 축제'

2026 일대일 DAY, 우수 양육자 등 시상

일대일사역본부가 개최한 2026년 일대일 DAY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은혜의 축제'가 지난 11월 1일(일) 오전 8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과 이천만광장에서 열렸다. 우수 양육자, 우수 사역자, 우수 강사 시상, 일대일 고충 상담, 다트 게임, 포토 존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우수 양육자 김정숙 권사(이촌공동체)는 "양육은 나 또한 예수님께 다시 양육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님이 다시 양육자로 부르신다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심을 다해 양육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남현영 기자

일터를 시작하는 성도들과의 대담

11월 10일 맞춤형 일터 세미나 첫 강의

이제 막 일터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성도들을 위한 강의를 마련했다. 일하세 플러스가 11월 10일(화) 오후 7시 선릉더모임센터에서 '일터를 시작하는 성도들과의 대담'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인용 장로(전 삼성전자 CR 담당사장, 전 당회서기장로)가 강의한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이번 특강은 일하세 플러스가 마련한 '일터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세미나'의 첫 순서다. 맞춤형 일터 세미나는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릉더모임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010-4949-0254

/ 남현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네팔에 '산모 · 신생아 응급처치 포스터' 보급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9월 28일(월)부터 10월 26일(월)까지 바그마티주, 간다키주 등 네팔 7개 주의 보건소와 분만소 2천여 곳에 산모와 신생아 응급처치 지침을 담은 포스터를 보급했다.

NGO 더멋진세상 네팔 지부와 네팔 보건부 산하 가족복지과가 함께 '응급 산과 및 신생아 관리 현장 지침 포스터' 10종을 제작했다. 포스터에는 분만 현장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진이 곧바로 확인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황별 표준 처치 방법을 소개했다. 주제는 '정상분만 관리', '34주 미만 조산 관리', '신생아 소생술', '산후 출혈', '쇼크 관리',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후기 출혈' 등 10가지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해에도 의료 접근성이 낮은 네팔 산간 지역 보건소의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배치를 지원했다.

/ 홍하영 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가족

남양주 권사회, 남양주M센터 원데이 아웃팅

남양주온누리교회 권사회가 지난 10월 31일(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남양주M센터에서 원데이 아웃팅을 했다. 권오향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와 권사 20명, 사회선교팀 6명이 참석했다.

이날 남양주온누리교회 권사회는 인도어와 네팔어 특송, 인도 음식 만들기, 인도 상점 둘러보기, 저녁 식사 등을 섬겼다.

박은숙 권사(남양주온누리교회)는 "이번 권사회 원데이 아웃팅은 이주민들과 친밀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남양주M센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축구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회 100여 명 참가

전도사역본부 공사랑팀이 개최한 제18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회에 국내 온누리교회 5개 캠퍼스에서 선수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 10월 31일(토)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조별 리그, 하이브리드 리그 등이 이어졌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한마음 축구대회는 축구 실력을 겨루는 체육행사를 넘어서 국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사랑과 연합을 실천하는 축제다. 축구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이 대회의 비전이다.

/ 남현영 기자

"가정에서 자랄 시간을 빼앗지 말아달라!"

전국입양가족연대, 국내입양분과위 국민감사 청구

온누리교회 고아사역팀(제이홈, 온누리울타리)이 속한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오창화)와 주사랑공동체(베이비 박스 운영) 등 6개 입양가족 단체가 지난 11월 3일(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심의 실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결연을 기다리는 아동은 271명, 예비 양부모는 613가정인데, 결연심의에 올라간 아동은 월평균 21명에 그쳤고, 불수용을 뺀 결연율은 57%에서 48%로 떨어졌다. 월 2~3회로 늘리겠다던 결연심의도 9월과 10월 다시 월 1회로 줄었다. 단체는 위원회에 심사기준표와 운영지침이 없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없는 사유로 예비 양부모를 부결한다고 주장했다.

오창화 대표는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시간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찾아가는 하트스쿨

부모 15명, 어린이 19명 참석

하트스쿨 사역자 과정 현장 실습 '찾아가는 하트스쿨'을 지난 10월 31일(토)부터 11월 1일(일)까지 서산온누리교회에서 했다. 부모 15명과 어린이 19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하트스쿨에서는 '가족관계 놀이', 부모 대상 '강점 발견 강의', '내면 상자 만들기 미술 활동' 등 건강한 자아상과 가정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트스쿨 사역자 과정은 2027년 상반기 하트스쿨 '테이블 리더'로 활동할 사역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지난 10월 17일(토) 시작해 오는 12월 5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JDS홀과 충성홀에서 열린다. 하트스쿨은 가정 내 관계 회복과 자녀 양육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3710-9781(이호찬 팀장)

/ 홍하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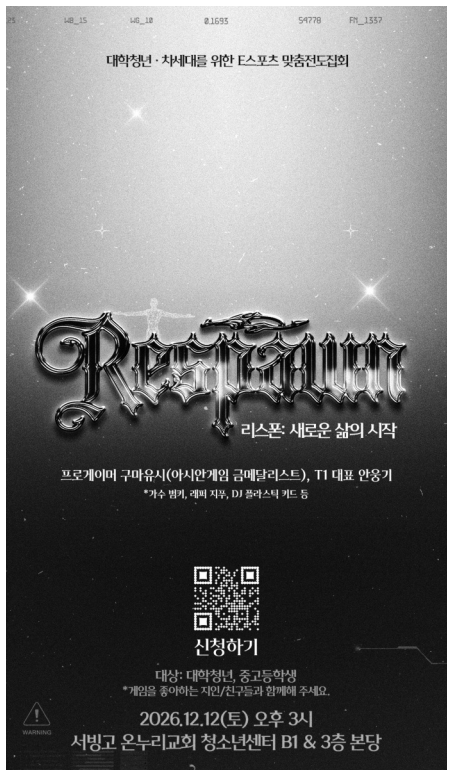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E스포츠 맞춤전도집회 'RESPAWN'

12월 12일 온누리청소년센터, 서빙고 본당
다음세대에 친숙한 게임 문화 매개로 복음 전해



온누리교회가 대학청년과 차세대를 위한 E스포츠 맞춤전도집회 'RESPAWN(리스폰):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개최한다. 12월 12일(토)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다음세대에게 친숙한 E스포츠와 게임 문화를 매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

E스포츠 맞춤전도집회에서는 게임부스 체험, 프로게이머와의 대결, 특별공연, 프로게이머 토크쇼, 메시지 등이 이어진다. 안웅기 대표(T1 COO)와 구마유시 선수(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특별 게스트로 참가한다. 가수 범키와 래퍼 지푸, DJ 플라스틱 키드의 공연과 구마유시 선수와 1대1 게임 대결도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다음세대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또는 포스터 속 QR코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 포함 4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5천 원.

문의: 02-3215-321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누적 조회수 2,200만 돌파, 음원 누적 스트리밍 10만 육박

CGN이 제작한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의 최종 TOP7이 11월 8일(일) 오후 5시 방송에서 공개된다. 앞서 호림과 나시온 보이스가 TOP7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남은 다섯 자리를 두고 김성결, 김성신, 김신의, 김호준, 석상은, 아삽, 이철규, 임보민, 장근희, 키디비 보이스가 경연을 펼친다.

이번 경연에서는 군 장병에게 사랑받아 온 찬양과 대중 가수의 리메이크로 다시 주목받은 명곡, 힐링멘토인 원곡자 앞에서 선보이는 무대 등이 펼쳐진다.

CGN 집계에 따르면 11월 4일 기준 '힐링보이스' 전체 영상(본편·무대 클립·쇼츠 등)의 누적 조회수가 2,200만 회를 넘어섰다. 유튜브 1,121만 회,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릴스 1,086만 회를 기록했다. 음원 누적 스트리밍도 10만 회에 육박한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CGN에서 방송된다. 기독 OTT '퐁당(fondant)'과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제12차 온누리 선교컨설팅

11월 10~12일 마임비전빌리지

제12차 온누리 선교컨설팅이 11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여주시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융합 선교 실현을 위한 영역별 선교, 총론에서 각론으로 실천적 실행과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협력 기관, 선교사 등이 참석한다.

제12차 온누리 선교컨설팅에서는 'NGO', '융합과 연합', '리스크 관리' 순으로 하루 한 세션씩 발제와 패널 토론을 한다. 테이블별 소그룹 토론과 발표도 한다. 친교의 밤, 네트워킹의 밤, 캘리그래피 성탄 카드 쓰기, 건강 스트레칭, 성탄 선물 꾸러미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10일(화) 개회예배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11일(수) NGO 세션 '지속가능한 NGO 선교'에서는 최운정 사무총장이 'NGO-선교기관 격차 진단 프레임', 유시용 교수가 '선교기관에 필요한 NGO 시스템', 유원식 회장이 '선교NGO 지속가능성 로드맵'을 발제한다. 융합과 연합 세션 '현장 선교사 중심의 융합과 연합'에서는 한영훈 선교사 등이 발제한다. 12일(목) 리스크 관리 세션 '선교·교회 리스크 관리'에서는 이상준 장로가 '현장 안전·노무 리스크 진단', 최태형 집사(변호사)가 '상시 법률 자문 시스템 구축', 박언용 장로가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대응과 재정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문의: 02-3215-3244

/ 홍하영 기자

대만 링량교회 목회자 'IN2 콘퍼런스'

11월 11~15일 서빙고, Acsts29 비전빌리지

2000선교본부가 대만 타이베이 링량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대만 링량탕 맞춤 IN2 콘퍼런스'(이하 링량교회 IN2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11월 11일(수)부터 15일(일)까지 5일 동안 서빙고온누리교회와 Acsts29 비전빌리지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 공동체로 세워가는 교회'를 주제로 열린다. 링량교회 목회자와 링량교회가 분립해 세운 개척교회 담임목회자 부부 70여 명이 참석한다.

링량교회 IN2 콘퍼런스에서는 '비전', '양육', '목양', '선교', '예배' 순으로 하루 한 주제씩 강의와 조별 토의, 발표 등이 이어진다. 온누리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론과 유기적 양육, 목양, 선교, 예배 노하우 등을 전수한다.

11일(수) 박종길 목사 '교회론과 목회철학', 12일(목) 신기섭 목사 '유기적 양육체계', 이기훈 목사 '양육 DNA', 13일(금) 이재훈 위임목사 '선교적 교회를 향한 온누리교회의 여정', 양성민 목사 '목양체계', 노치형 목사 '거버넌스', 유진아 목사 '사회선교', 14일(토) 한충희 목사 '모달리티/소달리티', 김태완 목사 '이주민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온누리교회 소개는 김홍주 목사, Acts29 비전빌리지 투어는 함선호 장로가 맡는다.

문의: 010-5395-2319

/ 홍하영 기자

평택온누리교회 사랑나눔 바자회

기부금 100만 원, 국내외 교회 후원

평택온누리교회에서 지난 10월 25일(일)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의류 약 150벌을 판매했고, 기부금 100만 원(현금 70만 원, 노트북 30만 원)을 모금했다.

기부금은 10월 28일(수) 음성 예수한영혼교회(전홍열 목사)에 전달했다. 기부받은 옷은 캄보디아 강희자 선교사, 인도네시아 마주 목사, 몽골 아지트 목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영환 집사(평택온누리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자회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바자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러 교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서빙고 일대일 동반자 수료자

수료예배 : 11월 15일(일) 서빙고 3부 예배 / 장소: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대상자: 9월 1일~10월 31일 사이에 완료 보고된 성도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 가정사역 문주안 윤혜선	한은혜 이지혜	조점순 문연미 홍민영 이효진	허미호 김영옥	이진화 노규철 이채연 김안나 최은빈 김가은 허지우 김윤영	안희원 정현지 이경민 김명란 이나은 박정미 이보람 김지은 이수민 한효은 이연우 송륜진 이은빈 장미나 이정원 홍은정 이주연 이숙용 이진희 김유나 장제익 이우석 정예나 이근실 정은송 이주선	조영교 구자형 조우신 문정미 조현지 박미정 최요환 강신봉 최주혜 방선영 한예슬 최형자 홍승우 박재광
■ 강서 강석일 조대현 이진의 엄진호	■ 마포 김장미 이수연 김현영 최재선 노현경 이기정	■ 영등포구로 김 원 서종경 송미정 김영미 신정은 박진희 유동호 이지훈	■ 공동체 없음 김라엘 이선하 김승원 안 엽 신영욱 유윤상 장동호 차현진 최동현 서종경	■ CHPlus 문지혜 정호선		■ W 곽주은 황지원 신희정 한누리 임선재 이현경
■ 강촌 고봉섭 김옥명	■ 서대문 서지혜 곽현주 이순영 김순정	■ 용산 권순리 오정택 양다솔 최정주 윤승재 왕향래 이지은 강도영	■ 한강 정지수 조은미	■ Pole2 이현주 김유진		
■ 관악금천 박인영 정재호 이한나 김의선 한상운 손현석	■ 서빙고 강기찬 김철환 이태제 이상목 정지아 김승연	■ 이수 김여진 김선희 김혜진 이세영 정원서 최제하	■ OCC 김지나 강윤형	■ SNS 강민정 장수영 강 석 이성주 강창우 김근철 고민석 이예닮 국성근 이상화 김민성 박광석 김소연 황현선 김수현 김근수 김윤진 심숙화 김이삭 이보경 김정아 고정희 김채린 최희선 김한나 김귀영 박세연 이지현 박세영 이문정 박지원 최세정 박채아 김혜림 박혜진 장복희 방현준 김동원 안주영 서혜연	
■ 김포 박동준 박상희	■ 성동광진 백수정 김은정 오은주 허혜숙 이철우 김형준 최예나 정 솔	■ 이촌 이민경 최인경 이정선 박임준 최선유 한진수	■ S브릿지 김정미 곽지영 김태연 박영미 문가람 조지원 우승표 홍준서 이상민 박남식 정승권 서동환 한정윤 허 진	〈대학청년〉 ■ 하늘 강은총 한소리 곽수연 최혜진 김지성 신주영 박성진 조영종 박예은 이현주 박진우 신준환		
■ 남대문희망 변용환 이채용		■ 일산파주 윤종덕 이신창				
■ 동대문중랑 강지현 송정화 김선미 이정희 김용진 박종우	■ 성북 구태연 김양희 이경훈 강동우 주혜옥 최순자	■ 중종로 김종중 박지수 남상태 전성심 이진명 정충균				
■ 동작 설선미 정혜영 양지연 박선홍 유효상 이재욱 조성문 홍원일 최상희 김영민	■ 신용산 김진우 김윤욱 이용규 조석환					
	■ 양천					

양육반 수료자

● 서빙고	변성미
■ 강은수 목사반	송승민
김영분	송유진
김은현	신홍준
방현주	어수정
이은경	오예진
이지혜	이광호
하규연	이승녀
홍유정	이재열
■ 여성민 목사반	임흥순
강희정	장미순
민서윤	장영인
박지현	주연진
백 승	최영호
	한호석
	홍 경

장로칼럼

공감과 배려의 마음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장편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다. 달구지에는 짚단이 실려 있었고, 농부는 자기 지게에 짚단을 따로 지고 갔다. 펄벅의 생각에는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농부도 함께 타고 가면 편할 것 같아 물었다.

"농부는 왜 소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힘들게 걸어 갑니까?"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루종일 소도 힘든 일을 했는데 짐을 나눠져야지요"라고 답했다.

펄벅이 경주의 한 시골집을 지나가다가 꼭대기에 매달린 감을 바라보면서 "저 감은 따기가 힘들어 그냥 두는 건가요?" 물었다.

"그것은 까치밥이라고 해서 겨울철 새들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지요."

펄벅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보고자 한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고요. 이것만으로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다. 그녀는 책에 "내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미국이고, 다음은 한국"이라고 적었다.

그렇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존귀히 여겼던 농부처럼 우리는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민족이다. 감나무에 남겨둔 까치밥은 겨울을 지내야 하는 새들을 위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다.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라도 배려하고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심성을 지닌 국민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에서 스마트폰을 잠시도 뗄 수 없는 개인 중심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원하는 정보를 찾고,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앱으로 주문해서 홀로 밥을 먹는다. 혼자 살 수 있는데 왜 남까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利己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인 이기심은 본성이기에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채우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산다. 학교 공부가, 취업이, 결혼이, 내 집 마련이, 인생살이 모두가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같이 살아가야 한다면 나 아닌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베풀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나 이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공감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분, 욕구 등을 이해하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삶의 바탕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겸손은 커지고, 이해심은 더 깊어져 과도한 욕심을 쉽게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감(共感)하고 배려(配慮)하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멀리서 바라보며 위로의 말만 건네는 것보다,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뎌 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다. 지금은 공감과 배려 가운데 관심과 사랑으로 품어 줄 그 한 사람이 절대로 필요한 때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 2:3~4).

권사칼럼

권사들의 '예배 중보기도 사역'



엄지용 권사
(동작공동체, 서빙고 8기 권사회 예배 중보기도 담당)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예배 중보기도 사역은 온누리교회 초창기 故 하용조 목사님이 예배를 돕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성 성도들이 팀을 이뤄 오랜 시간 뜨겁게 기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선배 권사님들이 소천하시거나 요양원에 가시고, 연로해지시면서 적은 인원이 사역의 맥을 이어왔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권사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 예배 중보기도 사역을 다시 체계화했다. 현재는 27개 공동체 권사님들이 토요주일 1~3부, 일요주일 1~5부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로 섬기고 있다.

권사님들은 예배 시작 한 시간 전쯤 지하 2층 모세기도방에 모여 기도한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예배 중보자와 예배 봉사자, 예배의 영적 흐름을 위한 기도다. 둘째, 예배의 순서와 진행을 위한 기도다. 예배 부름부터 찬양, 대표기도, 성경 봉독, 설교, 봉헌, 축도까지 각 순서에 맞춰 통성으로 기도한다. 매주 〈온누리신문〉 1면 기사와 주보에 소개되는 선교사님들,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 사역을 섬기며 경험한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한 대표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했다.

"권사님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얼마나 열심히 참석해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사탄의 공격 없이 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표권사님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교회로 향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부터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 그분들을 더 기쁘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다음 주, 또 그다음 주로 이어지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중보기도가 예배를 돕는 일을 넘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삶까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귀한 사역임을 깨닫게 한다. 나 역시 이 사역을 섬기며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됐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권사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권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도의 자리가 더 풍성하게 채워짐으로 예배 중보기도 사역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발전해서 다음세대와 후배 권사님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선배 권사님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지켜 오신 기도의 발자취를 소중히 이어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권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기도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더욱 충만해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사랑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이 거룩한 사명이 다음세대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이주민과 하나님 나라



최명현 선교사
(화성M센터)

저는 젊은 시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보다 덮어놓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26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주와 이주민의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성경을 배워 온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사람들과 친구가 되며,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 보니 이스라엘만 보이던 자리에 가나안, 이집트, 모압, 바벨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 관계에서도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창 12:3)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낯선 땅에서 기근과 두려움, 불안과 의심, 실수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함 속에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간 강제 이주의 피해자였고, 노예와 죄수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워 이집트와 주변 민족과 자기 가족까지 살리셨습니다(창 45:5). 이주민의 현재 조건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움받는 외국인 노동자도 훗날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으나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출 2:22). 하나님은 그곳으로 찾아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잊힌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을 함께 발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룻 1:16)라고 고백하며 낯선 베들레헴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배려하고 보호했고,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주민은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이웃입니다.

예수님도 헤롯을 피해 어린 시절 이집트로 피신하셨습니다(마 2:13~15).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친히 겪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가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난민이 함께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주민을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웃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주민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응답해야 합니다. 셋째, 이주민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넷째,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 복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민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이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주민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때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홀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3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 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땅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장소: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셔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혜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정진모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0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수원 031.895.6500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주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룸홀(3층) / 꿈땅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중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땅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땅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 4부 14:0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10:00, 12:00 샤이닝홀 / 유아부 10:00, 12:00 누리홀 / 유치부 10:00, 12:00 꿈아이홀 / 유년부 10:00, 12:00 드림홀 / 초등부 10:00, 12:00 기쁨홀 / 꿈땅3부 14:00 드림홀 / 소년부 10:00, 12:00 믿음홀 / 파워웨이브 8:00, 10:00, 12:0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2:0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용인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로제타홀(2층) / 고등부 10:00 로제타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 064.794.8090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땅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땅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 041.665.9686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용인**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김태용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견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현목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김태용
최영민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길한솔 길혜영 김관수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완
김한국 김 현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렵문홍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원
박성천 박성훈 박수환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행삼 백성우 서수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종
신원석 신주용 손정훈 송동주
송재호 안대진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윤길중 윤마리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이환희
임동현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장제홍 장지훈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주하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청훈 한충희 해롤드김 허원희
황문규 황유일

◈전도사(전임)
유석현 유현우 이예찬 장건우
최강호 홍근영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이기훈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홍미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미애 박상준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컬
서영철 손슬기 싱루애놉 양현수
에릭 마이클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헌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이현경 이호산나
임성진 임진숙 정동윤 정연영
정진모 제인량 최선재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명주 강혜은 고우리
구길모 국지환 권영찬 권순건
권평화 권혁성 김가희 김기태
김동환 김명주 김미소 김민희
김범석 김빛나 김소망 김승희
김신영 김에스더 김영범 김영옥
김예은 김예찬 김요한 김 원
김유미 김재현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화목 김효진 나가노
마사토 남 혜 뉴질랜드 드미트리
멕시코 문수진 미즈바울 박 권
박성훈 박시온 박영애 박의력
박정민 박종필 박찬미 방예린
방진아 배성진 배윤주 버슨 펠로
서나영 서은규 서은지 서혜진
손유결 송영호 송찬욱 송 현
송현우 신대환 신지수 신호철
아메리카노 안류택 염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영광 오진우 오혜광
옥준우 우국화 우수진 우승희
유엘리사 유요한 유지은 유 찬
윤지현 이건준 이나단 이미진
이민규 이상영 이선민 이선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준영
이지영 이택민 임경미 임노완
임효영 장성엽 장영주 전가윤
전미연 전준호 정경일 정승혁
정영현 정유나 정주은 정찬중
조민희 조슬기 조영찬 조혜서
조운식 조준우 조현주 조혜원
지석구 지예찬 주승환 주우형
주영진 차선일 최성진 최 은
최형주 최혜정 추선형 하예림
하헌영 한숙희 허영은 홍세나
황서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두진
김명세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병옥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역 김영수 김용기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준규 김준용 김준홍 김지홍
김창욱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나상권 나영욱 남상길 노기홍
노재한 류기범 류지영 문성기
문정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두원 박명률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일구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형민 박흥균 배기영 배 문
배병태 백남인 백승우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성현 서진봉
서찬교 성주명 성창섭 손정래
손한기 송기선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종환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학철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유식 양재수
양춘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기 이상덕 이상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헌규 이헌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임현태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전한백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순풍 정영규
정영열 정용화 정운오 정재탁
정재현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성현A
조성현B 조진호 조정구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향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최형주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욱
황용오 황의서

◈시무장로
강기흥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석휴 강은철 강종도 강찬옥
강창재 강태욱 고길범 고영대
곽희준 구경용 구자엽 국중대
권순형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섭 김동수 김동우 김동원
김동준 김동환 김만순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집 김상철 김선귀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생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의래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완 김종호 김지학
김지현 김진현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태형 김해기 김현주
김형석 김형준 김화선 김효구
김희식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남명현 남윤영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경한 노전기 노지준
노하수 라상원 명영찬 문상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기일
박구병 박균명 박덕현 박동현
박명균 박명신 박복응 박성규
박승병 박언용 박영한 박용권
박용익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태식 박태준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효신 박흥선 방찬종
배승호 배창준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성광제
손기철 손기태 손태용 송동섭
송영봉 송영호 신귀현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헌승 신현식 신현일
심길섭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상헌 안연환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충식 양현열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세현
오승탁 오의식 용내문 우승엽
우시정 원종호 유봉국 유우선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동욱 이봉걸 이삼형
이상율 이상준A 이상준B 이상혁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영철 이영훈 이원로
이원상 이원석 이원우 이은일
이은호 이정석 이정훈 이종석
이주영 이청원 이토 히로시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증재 허 민
홍동욱 홍 정 JoelKim Joe Lee
Michael Lee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전영한 정광택 정남식
정몽준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홍순직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박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한결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윤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윤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조지은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홍우석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문봉주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재정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수 김상례
김상훈 김성근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장인 김정운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김형중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미은 박승훈 박종훈
박찬민 박현식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안성진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노우에 마키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권우중 김경덕
김경선 김수광 김수호 김 완
남 영 노흥규 백남인 백호현
신중수 송창도 안종인 우광방
우승호 윤영오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용하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오현 고다이라
김승집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노유철 박호택 성헌제
송태민 신솔문 심상일 여훈필
유형민 이상헌 이수성 이승구
이은창 이준상 손정래 장민용
전수열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최경주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Christine Kwon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권재현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승호 최태영

소천

10/30(금) 김포 김윤정 성도 모친상 고 김효심
10/30(금) 관악금천 박인숙 집사 부친상, 조성호 집사 빙부상 고 박진
10/30(금) 김포 정민주 권사 모친상 고 정재호
10/31(토) 이촌 조영동 성도 부친상, 김라현 집사 시부상 고 조질현
10/31(토) 강남B 육의곤 성도 모친상 고 이영자
10/31(토) 하모니 한혜경 집사 모친상 고 이해자 님
11/3(화) 한강 박윤순 집사 부친상, 이명희 집사 시부상 고 박종한
11/4(수) 과천의왕 김옥규 성도 시모상 고 유순분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 (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선정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취약 계층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등본, 치매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앱의 헌금 메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온누리교회
헌금온라인 안내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2027년 온누리교회 원두 납품업체 입찰 공고
모집: 커피 원두
규모: 매월 250~300kg
장소: 서빙고 온누리카페, 베이커리 / 양재 커피숍
계약 기간: 2027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1년), (1년씩 2회 연장 가능)
서류제출 : 2026년 11월 24일 (화) 17:00 도착분에 한함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서빙고 SVC부(02-3215-3176)
*기타 상세 사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참조

2027년 온누리교회 원두커피 입찰 시음 평가자 모집
모집: 장로 2명, 권사 2명(커피 좋아하시는 분)
일정: 12월 16일(수) 14:00~15: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청소년센타 2층 감성향양실
시음: 아메리카노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서빙고 SVC부(02-3215-3176)

MERRY
CHRISTMAS

2026 차세대 주일학교
성탄 독후감 대회

제 출 기 한 : 11월 29일까지

우편접수 : 11월 28일 도착분 한정

시 상 식 : 12월 20일(청소년센터 3층 도서관)

목 적 기독교 도서 읽고 독후감쓰기 훈련을 통해 신앙 성장 도모

대 상 꿈땅 주일학교 어린이(초6 이하)

시 상 우수작 온누리신문 게재 그리고 소정의 상품





"어린이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연습(로렌스 형제 원작)",

"오스왈드 챔버스가 들려주는 어린이 산상수훈" 중 택 1

책 읽고 독후감 작성 제출 (독후감은 200자 원고지 자필 작성)

- 유년부 3장 이상 - 초등부 5장 이상 - 소년부 7장 이상 제출

도서관 대출 및 자가 소유 도서 외 신규 도서구입 희망시 도서쿠폰 지원

ONNURI CHURCH LIBRARY

온누리교회 도서관

02-3215-3110